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전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

오일시장 방문 군민·주변 상가 중심으로 전개

영광군은 지난 6일 영광 오일시장에서 상인과 시장을 찾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출입 자체 등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은 시장을 강제적으로 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출입구를 일원화하여 모든 출입자에 대해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캠페인 전개는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시장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상인은 물론 오일시장을 찾는

군민과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전단지를 나눠주며 동참을 호소했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군민들께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같은 어려움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고 계신다”며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오일시장은 특히 어느 시설보다 취약지가 될 수 있어 군에서도 철저한 방역은 물론 발열체크 등 시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군민 스스로가 사회



적 거리두기 동참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화순군, ‘스마트 농업 선도’ 청년 농업인 집중 육성

화순군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올해 5개 사업에 3억을 투입해 ICT 기반 시설 확충과 청년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청년4-H회원 맞춤형 지원 사업(1개소, 1500만 원)과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사업(4개소, 1억 2200만 원)을 추진해 ICT 발달대사 탐지기, 채소 이식기, 측조사

비 이앙기, 조사료 작업 자재 등을 지원한다.

영농 승계 청년농 지원 사업(2개소, 7300만 원)을 통해 ICT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사업 대상자의 시설원에 광합성 촉진 기와 GPS 촉조사비 이앙기 도입을 지원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1개소, 5000만 원)을 추진, 반려동물 간식사

료 가공 기계를 설치하고 포장재를 제작할 계획이다. 2019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추진하게 된 으뜸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1개소, 4000만 원)으로 GPS 촉조사비 이앙기를 구매했다.

이와 함께 농업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영농 승계 가족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 6개 청년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 컨설팅과

창업 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래 스마트 농업 기반을 디자인하고 청년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농업인이 지역의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4-H연합회는 학교4-H, 영농4-H, 4-H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 회에서 회원 167명이 활동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고흥유자차 수출, 베트남에 폭발적 증가



고흥유자차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농식품 교역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서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은 지난 3월 두원농협의 유자차 15톤을 베트남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베트남으로 다섯 번째 수출 길에 오른 고흥유자차는 1분기 수출량이 44톤에 이른다.

이는 작년 한해 전체 18톤의 약

2.5배 달하는 물량으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176톤을 수출해 2019년 대비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송귀군 군수를 단장으로 한 해외수출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시장다변화를 목표로 시장 개척에 집중한 결과 체코, 베트남 등 신규시장에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두원농협 신선식 조합장은 “경기침체와 내수 시장 위축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유럽에 이어 베트남 등 신규시장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크게 한숨 돌렸다”며 “여러 해외시장에 고흥유자를 수출할 수 있도록 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권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담양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화

담양군 물순환사업소는 상수도 관광 블록구축 전 사전 고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양읍, 창평면 일부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수는 9월~10일 담양공용터미널, 담양공업고 등 주변, 14일 창평면 창평면사무소 주변으로 단수 시간은 수돗물 사용이 가장 적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30분 까지 4시간 30분이며 흐린 물 출수 예상시간은 다음날 0시부터 새벽 6시까지다. 현재 담양군은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전역에 18개 블록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 이번 사업은 블록구축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블록이 제대로 구축되는지를 확인하고 구간별 누수량

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망정비사업을 통해 블록이 완성되면 각 구역별로 공급량, 소비량, 누수량 파악이 가능해져 구역 내 발생하는 누수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고, 수도관에 작용하는 수압이 적정하게 유지되어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붉은 물 출수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피해 구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단수 전에 해당 읍면과 각 마을에 홍보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며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망정비 공사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양해와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모집

근로 경력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시민 대상

여수시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희망 딤돌 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3년 만기 시 72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시는 지난 1월 참여자 55명을 선정했으며, 이달 10일까지 1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0년 3월 17일 ~ 2002년 3월 16일 출생) 자로 최근 180일 이내 90일 이상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월평균 근로소득이 200만

원 이하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 참여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여수시 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구비 서류를 참고해 기한 내 인구일자리과(진남스포츠센터 1층)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인구일자리과(☎061-659-3679)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 창업, 결혼, 주거, 학자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씩 지급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에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광양시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초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달에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수당은 7,000여 명의 농어민에게 42억 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소가 있고,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에서 만 사용 가능하며, 카드 단말기를 갖춘 재래시장과 중소형 마트, 식당 등 9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나 대규모 매출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이·통장에게 배부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동부권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로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

한 속 범 일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 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